



미 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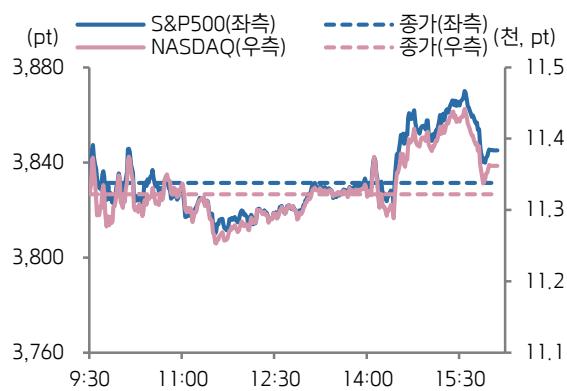
6 일(수) 미국 증시는 장초반부터 수요 부진에 따른 유럽발 침체 불안, ISM 서비스업 지표 둔화 등으로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매파적이었던 6 월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반등에 나섰으나 장 후반 시장금리 급등 부담으로 반등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다우 +0.2%, S&P500 +0.4%, 나스닥 +0.4%). 업종별로는 유트리티(+1.0%), 기술(+0.9%), 헬스케어(+0.6%) 등이 강세, 에너지(-1.7%), 금융(-0.2%), 경기소비재(-0.2%) 등이 약세.

6 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대부분 위원들은 7 월 FOMC 에서 50bp 혹은 75bp 인상하는 것에 동의. 경기 전망 상 제약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며, 인플레 압력이 지속될 시에는 훨씬 더 제약적인 정책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 이 같은 긴축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느리게 만들 수 있지만, 물가를 2%대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미국의 6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55.3 으로 전월(55.9)에 비해 소폭 둔화되며 2 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나, 예상치(54.3)는 상회. ISM 측은 물류난, 인력부족,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이 서비스 업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 유로존의 5 월 소매판매는 +0.2%(MoM)로 전월(-1.4%)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예상치(+0.4%)는 소폭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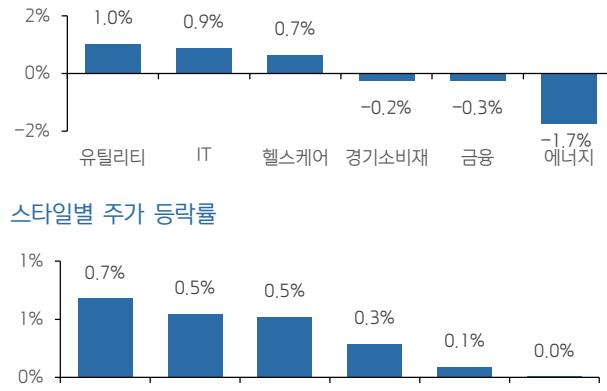
6 일 유럽 의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투자를 택소노미(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발표(찬성: 328 명, 반대: 278 명, 기권: 33 명). 그간 EU 측은 온실가스 및 방사능 폐기물 배출 문제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으나, 2045 년 이전 신규원전 건설허가, 2025 년 이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 수립 등 일부 조건 충족 하에 허용하는 입장으로 선회. EU 27 개 회원국 중 20 개국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2023년 1 월 1 일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은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될 예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3,845.08	+0.36%	USD/KRW	1,306.93	+0.53%
NASDAQ		11,361.85	+0.35%	달러 지수	107.08	+0.51%
다우		31,037.68	+0.23%	EUR/USD	1.02	+0.01%
VIX		26.73	-2.94%	USD/CNH	6.71	-0.01%
러셀 2000		1,727.55	-0.79%	USD/JPY	135.93	-0.01%
필라. 반도체		2,494.11	+0.6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210.01	-0.05%	국고채 3년	3.242	-4.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02	-6.3bp
Eurostoxx50		3,421.84	+1.85%	미국 국채 2년	3.002	+18.3bp
MSCI 전세계 지수		598.51	+0.13%	미국 국채 10년	2.928	+12.3bp
MSCI DM 지수		2,553.95	-0.5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91.47	-0.13%	WTI	98.53	-0.97%
MSCI 한국 ETF		56.52	-0.84%	금	1736.5	-1.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률은 1305.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급락에 따른 연저점 경신으로 인한 기술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

주요 체크 사항

2.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결과
3. 거래소의 자사주매입 규정 완화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공시 증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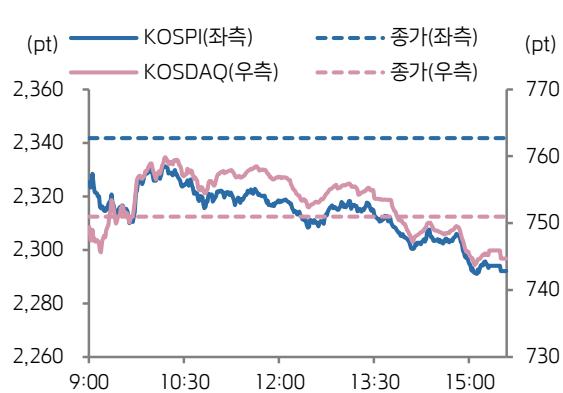
7 월 FOMC 에서 75bp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6 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역시 75bp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인상확률 5 일 83.8%→6 월 96.3%). 금번 의사록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을 지적함과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더욱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 이는 13 일(수) 6 월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컨센 8.8%, 전월 8.6%)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75bp 가 아닌 100bp 인상을 반영하려 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함을 시사. 다만, 수요 부진 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락,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지속, 경제의 여러 채널로 확산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 시그널 등을 감안 시 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전 거래일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보류 우려 등으로 일부 시총 상위주를 제외한 대형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음에 따라 2,300 선을 하회한 채 마감(코스피 -2.1%, 코스닥 -0.8%). 금일에는 과도한 주가 급락 및 밸류에이션 하락(코스피 후행 PBR 0.91 배)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환율 급등세 진정 등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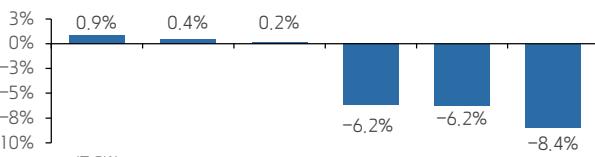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유럽 의회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 투자의 텍소노미 법안을 가결시켰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근 잇따른 급락세를 보였던 국내 원전, 플랜트, 건설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 또한 금일부터 당국의 시장 안정화조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10 월 6 일, 기준: 취득신고 주식수 10% or 이사회 결의전 30 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수량, 변경: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장중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에도 주목할 필요.

한편, 2 분기 삼성전자(영업이익 컨센 약 14.6 조원), LG 전자(컨센 약 8,300 억원)의 잠정실적이 발표될 예정. 최근 서버, IT 기기 등 전방 수요 부진으로 IT 주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들의 잠정실적 결과가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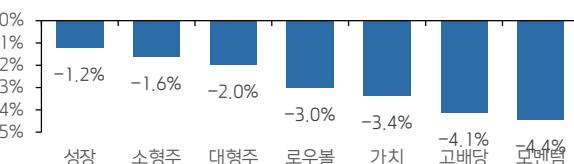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